

올해 우리 집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첫째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둘째 아들은 유치원에 들어갔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는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올해는 내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전까지 나는 새벽 다섯 시 반이면 출근했다.

그 시간 아내는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씻기고, 학교와 유치원 갈 준비를 마친 뒤 출근했다. 나는 늘 먼저 집을 나섰기 때문에 그 바쁜 아침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육아휴직 첫 월요일, 나는 처음으로 아내의 하루를 살아 보았다.

아이들을 깨우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아침밥을 차려주면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고, 양치하기 싫다고 버티고, 오늘 입을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갈아입었다. 현관에 나와서는 신발도 이것저것 신어 보며 또 한참을 망설였다. 정신없이 아이들을 챙기다 보니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그날 처음 알았다.

아내는 출근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는 것을.

더 놀라운 것은 집안일이었다.

우리 집 화장실에는 늘 깨끗한 수건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아내가 틈틈이 빨래를 하고, 수건을 개어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기에 우리 가족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집안을 둘러보니 그런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청소도, 빨래도, 아이들 준비물도 모두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 아내는 우리 가족이 불편함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묵묵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 아내도 나처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하면 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들과 놀아 주고, 책을 읽어 주고, 도서관에 데려가고, 집안일까지 해 왔다.

그제야 우리 가족이 아무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육아휴직을 하며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 예전에는 딸이 엄마와 함께 도서관에 다녔다. 나는 늘 일이 먼저였다. 퇴근하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라는 말을 먼저 했고, 도서관은 엄마와 딸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화요일마다 학교 앞에서 딸을 기다린다. 함께 도서관까지 걸어가며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점심시간에 카레를 두 그릇 먹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며 웃는다.

그제야 알았다.

딸이 기다린 것은 도서관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 걷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화요일마다 함께 도서관에 다니면서 딸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보다 먼저 내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책을 읽는 동안 나도 자연스럽게 책을 펼쳤다.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작은 변화가 생겼다.

주말이면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문화센터에 간다. “아빠, 이번 주도 문화센터 가?” 하고 먼저 묻는 아이들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난다. 주말 하루만큼은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양성평등은 거창한 것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대신 살아 보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힘들 때 옆에서 함께 버텨 주는 것.

나에게 양성평등은 그런 평범한 하루였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주변에서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했다고?”라며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았다. 아직도 육아휴직은 엄마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 가족도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육아휴직을 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 엄마라면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면 되고, 아빠라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 역시 예전에는 ‘엄마니까 더 잘하겠지.’, ‘나는 밖에서 일하니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 해 보니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다. 육아는 엄마의 일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었다.

육아휴직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다시 새벽 다섯 시 반에 출근하는 날도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육아휴직 전의 아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함께하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남편으로 살아가고 싶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육아휴직은 엄마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보다 ‘우리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다.

엄마는 출근 중이고, 아빠는 육아 중인 1년.

그 시간은 우리 가족을 바꾸었고, 무엇보다 나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끝나더라도 우리 가족의 함께하는 육아는 끝나지 않을 것이